제 1 장 무역 및 투자동향

제 1 절 개 요

1. 무역수지의 변화추이

2003년중 수출은 1,938.2억불로 전년대비 19.3% 증가하였고, 수입은 1,788.3억불로 17.6%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49.9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98년 이후 6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 1948년 정부 수립이후 196억불의 누적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III-1-1>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불,%)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수 출	125,058	129,715	136,164	132,313	143,685	172,268	150,653	162,471	193,817
(증가율)	(30.3)	(3.7)	(5.0)	(-2.8)	(8.6)	(19.9)	(-12.5)	(8,0)	(19.3)
수 입	135,119	150,339	144,616	93,282	119,752	160,481	141,116	152,126	178,827
(증가율)	(32.0)	(11.3)	(-3.8)	(-35.5)	(28.4)	(34.0)	(-12.1)	(7.8)	(17.6)
무역수지	-10,061	-20,624	-8,452	39,031	23,933	11,786	9,537	10,344	14,991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93년의 48.0%를 저점으로 상승추세를 지속하면서 2002년에는 66.0%를 기록하였다.

<표 III-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연 도	명목GDP (억불)	수 출		수 입		무역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1970	80	835	10.4	1,984	24.8	35.2
1980	622	17,505	28.1	22,292	35.8	64.0
1985	934	30,283	32.4	31,136	33.3	65.8
1990	2,525	65,016	25.7	69,844	27.7	53.4
1991	2,951	71,870	24.4	81,525	27.6	52.0
1992	3,147	76,632	24.4	81,775	26.0	50.3
1993	3,457	82,236	23.8	83,800	24.2	48.0
1994	4,024	96,013	23.9	102,348	25.4	49.3
1995	4,894	125,058	25.6	135,119	27.6	53.2
1996	5,200	129,715	24.9	150,339	28.9	53.9
1997	4,766	136,164	28.6	144,616	30.3	58.9
1998	3,177	132,313	41.6	93,282	29.4	71.0
1999	4,058	143,685	35.4	119,752	29.5	64.9
2000	4,617	172,268	37.3	160,481	34.8	72.1
2001	4,273	150,439	35.2	141,098	33.0	68.2
2002p	4,766	162,471	34.1	152,126	31.9	66.0

3. 세계무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2002년도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수출 2.5%, 수입 2.3%, 교역 2.4%)하였으며, 수출액 순위는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한 12위를, 수입액 및 교역액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다.(수출 12위, 수입 14위, 교역 13위)

<표 III-1-3> 세계무역중 우리나라의 위치

년도	세계(A, 10억불)			한국(B, 백만불)			비중(B/A, %)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992	3,747	3,894	7,641	76,632 (12)	81,775 (12)	158,407 (13)	2.0	2.1	2.1
1993	3,721	3,795	7,516	82,236 (13)	83,800 (12)	166,036 (13)	2.2	2.2	2.2
1994	4,255	4,319	8,574	96,013 (13)	102,348 (13)	198,361 (13)	2.3	2.4	2.3
1995	5,078	5,138	10,216	125,058 (12)	135,119 (11)	260,177 (12)	2.5	2.6	2.5
1996	5,301	5,386	10,687	129,715 (12)	150,339 (11)	280,054 (12)	2.4	2.8	2.6
1997	5,525	5,596	11,121	136,164 (12)	144,616 (11)	280,780 (12)	2.5	2.6	2.5
1998	5,397	5,524	10,921	132,313 (12)	93,282 (16)	225,595 (14)	2.5	1.7	2.1
1999	5,665	5,821	11,486	143,685 (12)	119,752 (14)	263,437 (13)	2.5	2.1	2.3
2000	6,362	6,591	12,953	172,268 (12)	160,481 (13)	332,749 (13)	2.7	2.4	2.6
2001	6,135	6,381	12,515	150,439 (13)	141,098 (14)	291,537 (13)	2.4	2.2	2.3
2002	6,419	6,638	13,057	162,471 (12)	152,126 (14)	314,597 (13)	2.5	2.3	2.4

제 2 절 수출입 동향

수출입과 손호영 사무관

1. 개 요

2003년도 輸出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1,938.2억불을 기록하여 당초전망인 1,750억불을 초과달성하고, 貿易收支도 149.9억불로 당초전망 80억불을 크게 초과달성하였다. 輸入도 전년대비 17.6% 증가한 1,788.3억불을 기록하여 당초전망인 1,670억불을 100억불 이상 상회하였다.

대내외 불리한 여건하에서 2000년 이후 3년만에 수출입 모두 史上最大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내수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수출 동향

2003년도 수출은 미-이라크 전쟁 및 사스의 발발, 태풍피해와 잦은 노사불안 등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두 자리 수로 성장하여 당초목표인 1,750억불을 200억불 가까이 초과달성하며, 2000년 달성한 사상최대 수출실적(1,723억불)을 경신하고, 연간 수출 증가액도 313억불로 '95년의 전년대비 290억불 증가기록을 경신하며 사상최고를 기록하였다.

가. 품목별 동향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가 37.3%로 지속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호조세를 주도하고, 반도체와 컴퓨터는 상반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하반기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시현 하면서 각각 17.5%, 15.7% 증가하였다. 자

동차는 7, 8월중 파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9월 이후 30%이상의 증가세를 시현하여 전년대비 29.4% 증가하는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모두 9월 이후 20%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다만, 5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02년 42.4%에서 '03년 43.2%,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56.6%에서 57.9%로 상승하여 주요품목에 대한 수출의 존도가 다소 심화되었다.

<표 III-1-4> 품목별 수출증가율(%)

품목명	2002년					2003년				
	1/4	2/4	3/4	4/4	전체	1/4	2/4	3/4	4/4	전체
○중화학제품	- 10.2	7.1	19.8	28.2	10.4	23.2	18.2	19.8	27.8	22.4
-반도체	- 23.7	9.6	53.6	57.7	16.6	9.7	3.5	23.6	30.2	17.5
-자동차	10.1	- 4.4	5.1	32.2	10.9	23.3	46.3	4.5	40.7	29.4
-철강제품	- 18.8	- 2.4	8.3	25.3	2.0	36.9	27.0	28.5	33.8	31.4
-석유화학	- 9.1	5.5	14.2	35.2	10.4	34.8	23.4	24.3	32.4	28.6
-일반기계	- 15.8	4.1	28.5	33.6	10.4	30.5	21.0	18.3	38.3	27.1
-컴퓨터	0.5	29.7	26.8	7.3	15.1	0.8	0.1	24.3	37.4	15.7
-가정용전자	1.1	14.6	10.1	19.5	11.0	15.1	6.0	14.0	33.6	17.2
-무선통신	32.2	42.4	31.1	41.4	38.2	48.4	33.0	42.9	29.0	37.3
-선박	- 27.2	8.2	42.3	37.2	9.7	16.6	27.1	11.9	-30.3	4.3
○경공업제품	-13.9	-5.1	0.0	10.2	-1.9	3.3	-3.2	-3.2	2.7	-0.3
-섬유직물	-15.8	-3.6	0.0	12.9	-2.0	-0.5	-5.9	-6.3	-3.1	-4.1
-섬유제품	-12.7	-9.8	-8.3	6.0	-6.5	-6.3	-7.4	-9.0	-4.2	-6.8
-타이어	-0.6	2.0	17.0	10.8	7.0	21.5	9.7	9.2	15.1	13.7

<표 III-1-5> 수출품목 비중 추이(%)

순위	1995		2000		2001		2002		2003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1	반도체	14.1	반도체	15.1	반도체	9.5	반도체	10.2	반도체	10.1
2	자동차	6.7	컴퓨터	8.5	자동차	8.9	자동차	9.1	자동차	9.9
3	선 박	4.5	자동차	7.7	컴퓨터	7.5	무선통신기기	8.4	무선통신기기	9.6
4	인조장섬유직물	4.3	석유제품	5.3	선박	6.6	컴퓨터	8.0	컴퓨터	7.7
5	영상기기	3.9	선박	4.9	무선통신기기	6.6	선박	6.7	선박	5.8
소계		33.6		41.4		38.9		42.4		43.2
6	전자응용기기	3.8	무선통신기기	4.6	석유제품	5.2	석유제품	3.9	석유제품	3.4
7	컴퓨터	3.8	합성수지	2.9	합성수지	3.0	합성수지	3.0	합성수지	3.2
8	의류	3.8	철강판	2.8	철강판	2.7	영상기기	2.5	철강판	3.0
9	철강판	3.0	의류	2.7	의류	2.6	철강판	2.5	영상기기	2.9
10	합성수지	2.9	영상기기	2.1	영상기기	2.3	의류	2.2	자동차부품	2.2
계		50.9		56.6		54.8		56.6		57.9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 및 세계 생산기지 역할에 따른 자본재 등 상품수입의 급격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일본, EU, ASEAN 등 기타 시장으로의 비중도 다소 하락하였다.

<표 III-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미국	29.8	19.3	20.5	21.8	20.7	20.2	17.7
일본	19.4	13.6	11.0	11.9	11.0	9.3	8.9
EU	13.7	13.0	14.1	13.6	13.0	13.4	12.8
중국	0.9	7.3	9.5	10.7	12.1	14.6	18.1
ASEAN	8.0	14.4	12.3	11.7	10.9	11.3	10.4
중동	4.0	3.9	4.5	4.4	4.7	4.6	4.4
중남미	3.2	5.9	6.0	5.4	6.5	5.5	4.5
아프리카	1.4	1.8	1.6	1.3	2.0	1.8	1.6

중국의 부상과 인도(106.1%) 및 러시아(55.7%)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는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對개도국 수출비중이 53.2%에서 56.4%로 증가하고, 주체별로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42.0%에서 44.0%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III-1-7> 주요국별 수출증가율(%)

국가명	2002					2003				
	1/4	2/4	3/4	4/4	전체	1/4	2/4	3/4	4/4	전체
미 국	-6.8	4.8	4.3	18.4	5.0	3.1	3.4	-1.0	11.1	4.4
E U	-10.7	1.9	15.9	39.3	10.5	24.8	15.0	9.5	11.3	14.7
일 본	-30.9	-13.5	3.2	15.5	-8.3	20.5	10.5	7.4	18.2	14.1
아세안	-3.2	16.7	17.2	17.9	11.8	6.6	6.6	3.6	23.6	10.1
중 국	4.7	17.8	35.6	64.2	30.6	60.6	35.6	51.4	46.2	47.8
중 동	-8.0	6.0	10.7	11.8	5.0	12.7	16.2	11.3	17.8	14.6
중남미	-30.8	-7.8	14.4	-2.9	-8.9	16.2	-9.6	-14.1	8.6	-0.7

3. 수입동향

2003년도 수입은 내수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에 따른 1/4분기중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과 자본재의 수입호조에 힘입어, 월간기준 사상최대치('02년 12월, 144.5억불)를 4회에 걸쳐 경신하며, 사상최초로 1,700억불대에 진입하였다.

가. 품목별 동향

2003년중 수입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등 주요 품목의 수출호조와 함께 반도체(22.0%), 반도체제조용장비(81.9%), 철강제품(30.8%), 자동차부품(12.6%) 등 원·부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비중이 소폭 상승한 반면, 내수경

기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재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표 III-1-8>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원자재	증가율	△33.7	20.4	33.5	△9.4	2.9	17.7
	(비중)	(54.4)	(51.0)	(50.8)	(52.4)	(50.0)	(50.1)
자본재	증가율	△35.7	38.0	35.5	△20.2	9.4	18.7
	(비중)	(37.0)	(39.8)	(40.2)	(36.5)	(37.1)	(37.4)
소비재	증가율	△46.1	38.6	33.5	8.4	23.6	12.1
	(비중)	(8.1)	(8.8)	(8.7)	(10.8)	(12.4)	(11.8)
총수입	증가율	△35.5	28.4	34.0	△12.1	7.8	17.6

주요 에너지원의 수입은 미-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1/4분기 중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모두 20%대로 증가하였다.

<표 III-1-9>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원 유	25,216	21,368	(△15.3)	19,200	(△10.1)	23,082	(20.2)
석유제품	4,911	4,736	(△3.6)	4,967	(4.9)	5,987	(20.5)
LNG	3,882	3,990	(2.8)	4,120	(3.3)	5,082	(23.3)
총 계	34,009	30,094	(△11.5)	28,287	(△6.0)	34,151	(20.7)

특히 원유수입의 도입물량(1.8%)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의 강세에 따라 도입단가(18.2%)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다.

<표 III-1-10> 원유 수입 추이(%)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국제유가(Dubai, $/B)	12.20	17.20	26.18	22.82	23.81	26.79
도입단가($/B)	13.72	16.91	28.22	24.86	24.27	28.68
도입물량(백만B)	819	874	894	859	791	805
수 입 액(백만$)	11,238	14,784	25,227	21,368	19,200	23,082
(증가율, %)	(△36.8)	(31.6)	(70.6)	(△15.3)	(△10.2)	(20.2)

자본재(18.7%)는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완화되는 가운데, 기계류(19.7%)와 전기전자제품(18.0%)의 수입을 중심으로 9월 이후 두자릿수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표 III-1-11> 설비투자 및 자본재 수입증감율 추이(%)

	'02년	'0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설비투자 증감율	8.4	△6.9	8.9	5.0	△2.5	△3.5	7.2	△8.0	△6.3	△4.9	1.5	△12.0	△5.0
자본재수입 증가율	9.4	22.9	39.8	32.9	16.9	7.4	17.9	8.9	6.1	15.2	23.8	13.5	25.2

소비재(12.1%)는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소비심리의 위축이 지속되면서 전년(23.6%)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품목별로는 컬러TV(64.9%), 캠코더(56.7%) 등 가전제품과 승용차(26.2%)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화장품(△1.0%), 모피(△34.3%), 완구(△0.9%), 보석류(△12.7%) 등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표 III-1-12> 10대 수입품목

(백만불, %)

순위	2002년				2003년			
	품 목	금 액	증가율	비중	품 목	금 액	증가율	비중
1	원 유	19,200	10.1	12.6	원 유	23,082	20.2	12.9
2	반 도 체	17,476	12.4	11.5	반 도 체	21,328	22.0	11.9
3	컴 퓨 터	5,682	4.7	3.7	석 유 제 품	5,987	20.5	3.3
4	석 유 제 품 천	4,967	4.9	3.3	컴 퓨 터	5,672	-0.2	3.2
5	연 가 스	4,120	3.3	2.7	천 연 가 스	5,082	23.3	2.8
6	철 강 판	2,679	29.9	1.8	철 강 판	3,320	23.9	1.9
7	석 탄	2,475	5.5	1.6	금은 및 백금	3,266	57.4	1.8
8	정밀화학원료	2,366	5.0	1.6	반도체제조용장비	3,003	81.9	1.7
9	제측제어분석기	2,237	13.4	1.5	전자응용기기	2,798	53.1	1.6
10	의 류	2,177	39.4	1.4	정밀화학원료	2,704	14.3	1.5
	10 대 상 품	63,379		41.7	10 대 상 품	76,242		42.6
	전 체	152,126	7.8	100.0	전 체	178,827	17.6	100.0

(주: MTI 3단위 기준)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에 이어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며, 신흥경제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세가 지속되었으며, 수출호조에 따라 기계류,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I-1-13> 10대 수입국가

(백만불, %)

순위	2002년				2003년			
	국 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 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일 본	29,856	12.1	19.6	일 본	36,313	21.6	20.3
2	미 국	23,009	2.8	15.1	미 국	24,814	7.8	13.9
3	중 국	17,400	30.8	11.4	중 국	21,909	25.9	12.3
4	사 우 디	7,551	△6.3	5.0	사 우 디	9,268	22.7	5.2
5	호 주	5,973	7.9	3.9	독 일	6,822	24.7	3.8
6	독 일	5,472	22.3	3.6	호 주	5,916	-1.0	3.3
7	대 만	4,832	12.3	3.2	대 만	5,880	21.7	3.3
8	인도네시아	4,723	5.6	3.1	아랍에미리트	5,756	36.7	3.2
9	아랍에미리트	4,210	△9.1	2.8	인도네시아	5,212	10.4	2.9
10	말레이시아	4,041	△2	2.7	말레이지아	4,249	5.1	2.4
	10대국가	107,067		70.4	10대국가	126,139		70.5
	전체수입	152,126	7.8	100.0	전체수입	178,827	17.6	100.0

4. 무역수지동향

2003년 무역수지흑자는 149.9억불로 전년(103.4억불)대비 46.5억불 증가하면서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흑자금액을 기록하였다. '98년 이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기반을 구축하였다.

<표 III-1-14> 무역수지 추이

(억불)

	'98	'99	'00	'01	'02	'03
무역수지(억불)	390.3	239.3	117.9	93.4	103.4	149.9

한편 對中 무역흑자는 2002년의 두 배 이상으로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한 반면, 對日역조는 '96년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표 III-1-15>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억불)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對中	7.4 (81.0)	17.4 (115.9)	28.4 (128.3)	34.6 (142.8)	54.6 (141.8)	48.2 (129.8)	56.6 (151.0)	48.9 (131.1)	63.5 (148.0)	132.0 (251.2)
對日	-118.7	-155.6	-156.8	-131.4	-46.0	-82.8	-113.6	-101.3	-147.1	-190.4

* ( )안은 홍콩포함시

<표 III-1-16> '03년 주요 국별 무역수지

(억불)

흑 자	적 자
중국 132.0, 홍콩 119.2, 미국 94.1, EU 55.0, 중남미 42.1, 아세안 18.0, 아프리카 11.1	일본 190.4, 중동 183.4, 대양주 18.6

제 3 절 외국인직접 투자 동향

투자진흥과 사무관 문병철

1. 세계 외국인직접 투자 동향

2003년에도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2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UNCTAD는 2003년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를 전년보다 1.4% 증가한 6,596억불로 추정하였다.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735억불로 전년에(4,603억불) 비해 3.0% 증가하였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990억불로 전년에(951억불) 비해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2002년 이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M&A(cross-border M&A) 규모가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그 건수에 있어서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UNCTAD는 분석하고 있다.

<표 III-1-17>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 : 십억불,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세계	482	686	1,079	1,393	824	651	660
(증가율)	(41.2)	(42.3)	(57.3)	(29.1)	(△40.8)	(△21.0)	(1.4)
선진국	270	472	825	1,121	589	460	474
(증가율)	-	(74.8)	(74.8)	(35.9)	(△47.5)	(△21.9)	(3.0)
개도국	193	191	229	246	209	162	156
(증가율)	-	(1.0)	(19.9)	(7.4)	(△15.0)	(△22.5)	(△3.7)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 FDI/TNC database

그러나, 2004년 세계 외국인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의 회복, M&A 규모 및 건수의 증가, 유로화 강세로 인한 EU기업의 대 미국투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시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업수익 증가, FTA(Free Trade Agreement)등 지역협정의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2003년 외국인직접 투자 동향

가. 개요

2003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9,101백만불) 대비 28.9% 감소한 6,46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02년 4/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1-18>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1년 (연간)	2002년 (연간)	2003년				
			1/4Q	2/4Q	3/4Q	4/4Q	연간
금 액 (증가율)	11,292 (△25.8)	9,101 (△19.4)	1,108 (△48.4)	1,553 (△41.1)	1,969 (△19.9)	1,837 (△1.1)	6,467 (△28.9)

2003년 외국인투자 감소는 전세계적 경기침체 및 이라크 전쟁 등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 외국인투자유치 중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03년 1~9월에도 중국의 투자유치가 12% 증가한 점도 투자감소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1] 이에 따라, 대만, 태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

---

1) 아시아 FDI 유입 대비 중국 비중(%, UNCTAD): ('00)29 → ('01)44 → ('02)56

2) 1~9월 외국인투자: 미국 649억불(5%), 프랑스 287억불(△39%), 중국 402억불(12%), 대만

나. 주요 특징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EU로부터의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는 감소하였다. EU지역은 삼성아토피나 합작투자(Total Holdings, 화공, 6월), 동양중공업 지분참여(Thyssenkrupp, 기계, 7월), SK전력 지분참여(BP, 전기, 12월) 등 M&A 투자의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4.1%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미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감소 등의 원인으로 전년 대비 72.4% 감소하였다.[3] 이는 미국의 對韓투자가 주로 관광, SOC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Lone Star(외환은행 및 극동건설 경영권 인수), e-Bay(옥션 증액투자), NewBridge(하나로통신 지분참여), Lehman Brothers(우리엘비오차 증액투자), Lear Automotive(한일 증액투자) 등 미국기업이 타국을 통하여 한국에 투자한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감소세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I-1-19>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 미국	3,889	34.4	4,500	49.4	1,240	19.2	△72.4
• EU	3,062	27.1	1,663	18.3	3,061	47.3	84.1
• 일본	772	6.8	1,404	15.4	541	8.4	△61.5
전 체	11,292	100	9,101	100	6,467	100	△28.9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건설 등 SOC관련 투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 부품·소재 분야는 전년에 비해 투자금액 및 비중이 모

22억불(△4%), 태국 11억불(△60%), 브라질 87억불(△41%), 호주 78억불(△35%)

3)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억불,%): ('02)1,379(14.9) → ('03.1~9)1,018(△4.1)

두 증가하였다.[4] 제조업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LCD 등 우리 주력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관련 협력업체가 한국 진출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5]

주요 부품소재 투자기업으로는 해리슨도시바 신규투자(LCD부품), 동우STI 증액(반도체소재), 덴소풍성 증액(차부품), JSR 신규투자(LCD 소재), 포레시아배기시스템 증액(차부품), 리퀴드메탈 증액(합금 소재) 등이 있다.

서비스업 중에는 금융·보험, 유통, 통신, 비즈니스서비스 분야가 전년에 비해 투자금액이 증가한 반면, 물류, 숙박, 문화, 전기·가스·수도 등 분야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III-1-20>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	금액	비중 (%)	금액	비중 (%)	증가율 (%)
농·축수산·광업	7	0.1	16	0.1	6	0.1	△62.5
제조업	2,911	25.8	2,336	25.7	1,697	26.2	△27.4
(부품·소재)	(1,353)	(12.0)	(1,210)	(13.3)	(1,286)	(19.9)	(6.3)
서비스업	7,235	64.1	5,131	56.4	4,131	63.9	△19.5
전기·가스·수도·건설	1,139	10.1	1,618	17.8	633	9.8	△60.9
전 체	11,292	100	9,101	100	6,467	100	△28.9

규모별, 투자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별로는 1억불 이상 대형투자는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고, 1천만불~1억불의 중규모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억불 이하 중·소규모 투자의 비중이 50%를 상회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기반이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

4) 부품소재 금액 및 비중(백만불,%): ('02)1,210(13.3) → ('03)1,286(19.9)

5) 제조업 중 부품소재 비중(%): ('01)46.5 → ('02)51.8 → ('03)75.8

<표 III-1-21>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건수	금액(비중)	건수	금액(비중)	건수	금액(비중)	증가율
1억불 이상	27	7,050(62.4)	23	5,942(65.3)	10	3,157(48.8)	△46.9
1천만불~1억불	98	2,850(25.3)	73	1,960(21.6)	76	2,160(33.4)	10.2
5백만불~1천만불	58	398(3.5)	63	422(4.6)	54	370(5.7)	△12.3
5백만불 미만	3,157	994(8.8)	2,243	777(8.5)	2,421	780(12.0)	0.4
합 계	3,340	11,292(100)	2,402	9,101(100)	2,561	6,467(100)	△28.9

투자유형별로는 Greenfield(공장설립형) 투자는 4,441백만불(68.7%), M&A 투자는 2,026백만불(31.3%)을 기록하였다. 2002년에 비해 Greenfield 투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M&A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나로통신, 삼성종합화학, 극동전선, 대상유통 등 대규모 인수·합병 및 지분참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I-1-22> Greenfield 및 M&A 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M&A	1,904	16.9	2,107	23.2	2,026	31.3
Greenfield	9,388	83.1	6,994	76.8	4,441	68.7

3. 외국인투자 정책동향 및 향후 방향

2003년은 외국인투자유치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진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세·입지·현금보조 등 인센티브의 확대, 경제자유구역 및 Invest KOREA의 출범 등 외국인투자 정책과 제도를 대폭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이라크 전쟁 등으로 전세계 FDI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한국의 도착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표 III-1-23> 외국인 투자 실적(도착기준)

(단위 : 백만불, %)

	2001년 (연간)	2002년 (연간)	2003년				
			1/4Q	2/4Q	3/4Q	4/4Q	연간
금 액 (증가율)	4,893 (△52.0)	3,709 (△24.3)	863 (△6.1)	661 (△0.3)	920 (122.8)	2,567 (49.6)	5,012 (35.1)

2004년은 새로워진 투자유치 제도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등에 힘입어 외국인투자유치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04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도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증가세를 시현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투자유치 체제를 적극 가동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투자프로젝트가 조기에 성사되도록 소관 부처가 중점 관리하며, 분기별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유치활동 및 경영·생활환경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와 함께, 강화된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 등을 Selling Point로 활용하여 부품·소재, R&D센터, 물류 및 관광 등 전략적 유치 분야별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